

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인사드립니다.

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의 실무책임자로서 부족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꿈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

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,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, 재정분권의 실현, 자치경찰제 부분 도입,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 산적한 지역 과제들을 해결해오는 데에 미력하나마 일조했다 자부하고 싶습니다. 그러나 엄밀히 평가해보면 자치분권은 일보전진을 하였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일보후퇴라고 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.

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도 '지방정부의 재발견'이라고 할 만큼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.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굳건히 하고, 지역 내 부족한 병상을 서로 나누고, 드라이브 스루 검사체계와 생활치료센터 등 창의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

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제안하고 지역화폐제도와 연계하는 등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발휘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. 그 가운데 몇몇 시·도지사들의 부재를 겪는 아픔도 겪었습니다.

여전히 '지역이 준비가 안 되었다든가, 지역이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또는 지역이 할 수 없을 것'이라는 말을 듣습니다.

저는 바로 그 말들이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

분권나라로 가야할 길이 멍니다. 올라갈 길이 가파릅니다.

교육, 의료, 일자리 등 모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정직하게 바라보고 도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.

그동안 감사했습니다.

2021.8.31.

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 올림